

To: 공동체 매일미사 담당자, 전례 담당자  
From: 한영 매일미사 편집부  
Date: 11/14/2013  
Re: 전례 도우미 서비스

+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한영 매일미사 편집부에서 인사 드립니다.  
2013년(가해) 12월호의 전례 도우미를 다음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12월 3일 (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

한국 교회에서는 이 날을 대축일로 거행하고 있으나, 미국 교회는 의무기념일로 거행하고 있음.

### **12월 12일 (목)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축일**

교황 비오 12세는 과달루페의 성모님을 미대륙 (북미, 중미, 남미)의 모든 국가들의 수호자로 선포하였으며, 1999년 3월 25일 교황청의 경신성사성에 의해 12월 12일을 미대륙 모든 국가의 축일로 승격되었다. 축일에 대한 참고자료는 한영 매일미사 81쪽에 있음.

■ 첨부파일: 미사 고유기도문

---

첨부된 내용을 주임신부님과 전례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례 도우미가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주 공동체의 전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매일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

##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축일

OUR LADY OF GUADALUPE

### 입당송

묵시 12,1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도다.  
태양을 입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도다.

### 본기도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과달루페의 동정 마리아 발현으로  
미 대륙 모든 국가들을  
축복해 주셨나이다.  
마리아의 전구로  
모든 교우들이  
서로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저희 마음속에 심어진  
당신 정의를 통해  
이 세상이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예물 기도

주님,  
과달루페의 마리아 축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또한 이 제물이 마리아의 자녀로서  
당신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힘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영성체송

루카 1,52

주님께서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도다.

##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성자의 살과 피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화목하게 하소서.  
또한 과달루페의 마리아와 함께 기뻐하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화와 일치 속에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